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32호 2004년 9월 3일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30~32 / FAX.042-472-3264

하반기 재래시장 활성화에 490억원 지원

중기청, 상인 사업비 부담 10% 인하

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하반기 재래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에 49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는 노후화된 재래시장 시설물의 개선, 주차장 및 진입로 확충,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의 개량에 시장당 30억원 한도 내에서 총 21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 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고 대신 국비 지원비율은 50%에서 60%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이미 지원한 202개 시장의 상인 부담을 인하는데 23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전국 재래시장의 우수상품을 전자상거래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을 16개 시도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올해 3000개 온라인 점포를 분양하며, 2008년까지 온라인쇼핑몰에 점포를 보유한 1만8000명의 디지털상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 쇼핑몰을 이용하면 지방의 상인들이 남대문 등 대형시장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B2B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지방 시장의 특산품도 고객이 주문하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택배체계도 갖추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대형시장 1곳에는 시범적으로 독자적인 전자상거래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200개 재

래시장의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재래시장 상품을 전화로 주문하면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는 '고객주문 콜센터'를 국비와 지방비 53억원을 들여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청은 재래시장 지원사업이 그동안 시설개선 중심에서 경영 및 상거래 현대화,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상인 영업기법 교육 등 실질적인 매출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02-509-7061)

창투사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 조성

중소기업청은 벤처캐피탈 산업의 건전화와 선진화 지원을 위해 '부실자산인수 전용펀드(Distressed Fund)'와 '유한회사형(LLC) 펀드'를 결성키로 하고 오는 9월말까지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대 300억원 규모(재정출자비중 80% 안팎)로 조성되는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는 창투사 및 창투조합이 보유한 미회수 현물자산의 인수 또는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재투자 등을 통해 창투사의 경영정상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펀드로서 금융기관의 배드뱅크(bad bank) 성격을 갖고 있다.

중기청은 172개 정부출자 창투조합중 55%인 79개 조합이 금년 또는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여 해산 예정이나 코스닥 시장의 침체 등으로 투자회수 시장이 취약하여 현물자산의 현금화가 어렵고, 현물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선별적인 합병, 조기퇴출 등의 체계적인 구조조정 및 회생 가능기업에 대한 재투

자가 미진함에 따라 이 펀드를 결성하게 됐다.

이 펀드가 결성되면 창투사의 유동성을 높이고 미회수자산 보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창투사의 경영건전화 및 벤처투자자금의 선순환 구조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현물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퇴출과 회생가능한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경제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펀드중심의 선진형 벤처투자 시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100억원 규모의 유한회사형 펀드를 시범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유한회사형 펀드는 실제 투자를 담당하는 투자전문가들이 직접 출자하여 상법상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이들 개인의 역량에 의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유한책임의 업무

집행조합원이 결성하는 펀드이다.

주식회사형태의 창투사와는 달리 회사의 주주와 투자담당자가 일치함으로써 외부의 간섭을 배제한 전문투자활동이 가능하고, 펀드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므로 펀드이익과 회사이익간의 이해상충 문제 및 도덕적 해이의 소지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펀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우수한 역량을 가진 투자전문가들이 쉽게 회사를 설립하고 외부의 간섭을 배제한 전문적인 투자활동이 가능하여 높은 수준의 성과보수를 통해 투자효율성의 제고가 기대된다.

또 투자전문가의 투자실적에 기초한 사람중심으로 벤처캐피탈 시장이 작동하게 되어 국내벤처투자시장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리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창업벤처국 벤처진흥과(042-481-4419)

DUNS 넘버 한시적 무료발급

중소기업청은 국내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넘버 발급기관인 D&B Korea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에게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DUNS 넘버를 무료 발급한다.

DUNS 넘버는 다국적 기업신용정보회사인 Dun & Bradstreet사가 130개국의 8600만개의 기업에게 부여하고 있는 9자리 코드로 세계시장에서 국제사업자등록번호로 통용되고 있다.

이 번호를 부여받으면 수출, 투자유치 등 국제거래시 기업신용조사 과정에서 활용되어 거래처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나 대부분 국내 중소기

업에게 DUNS 넘버는 생소한 국제거래 관행으로 보급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에서는 해외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발기업이 직접 발급시 10만원이 소요되던 것을 이번에 한시적으로 무료 발급을 지원하게 됐다.

DUNS 넘버의 무료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www.exportcenter.go.kr) 또는 중기협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Inno-Biz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인터넷상에서 기업정보를 직접 기입하여 등록하면 된다.

▶ 기업성장지원국
해외시장과
(042-481-4467)

100대 수출중소기업 상반기 수출 급증

100대 수출중소기업의 올 상반기 수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관세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출입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상반기 수출실적 상위 100대 중소기업'에 따르면 이들 중소기업은 내수침체, 원자재가격 상승 및 중국 등 개도국과의 경쟁심화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4% 증가한 44.7억불을 기록하여 전체 중소기업(34.2%) 및 대기업(41.1%)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기업은 무선통신기기 생산업체인 (주)팬택으로 10.8% 증가한 3.3억불 기록했으며, 이어서 브이케이(1.7억불), 한국티티(주)(1.7억불), (주)어필텔레콤(1.5억불), (주)신아(1.4억불) 등의 순이다.

특히 무선통신기기 수출업체인 브이케이는 지난해 상반기 12위(0.44억불)에서 올 상반기에는 293% 증가한 1.7억불을 기록하여 2위에 랭크되는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50.5% 증가한 27.3억불, 기계류는 68.8% 증가한 7.5억불, 철강·금속은 114.1% 증가한 2.9억불을 각각 기록했으며, 섬유류는 16.7% 증가한 3.7억불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업종별 수출비중은 전기·전자 단일업종의 수출이 100대 기업 전체의 60.9%를 차지했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을 주도하는 전기·전자, 기계, 섬유 등 3대 업종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세계 141개 수출대상국 중 수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

로 33.7% 증가한 9.7억불을 기록했으나 그 간의 급성장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반영하여 미국(50.3%, 6.6억불) 및 일본(116.3%, 3.2억불)으로의 수출은 50%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차세대 수출시장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브릭스(BRICs, 중국·러시아·브라질·인도)시장에 대한 수출은 49.4% 증가한 12.1억불로 나타나 이들 기업 총 수출액의 2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 상위 10개국으로의 수출액은 100대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의 74.5%인 33.3억불을 차지한 반면, 100만불 미만 수출국은 전체 수출국의 51.1%인 72개 국가로 나타났다.

▶ 기업성장지원국 해외시장과
(042-481-4465)

제34회 전국공예품대전 개최

중소기업청은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 ‘전국공예품대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전의 수상작 210종의 작품은 전국 16개 시·도별 예선대회에서 입상한 447종 8208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가 심사하여 선정했다.

개인상 부문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이광웅씨가 출품한 ‘반상기세트’가 선정됐으며, 국무총리상에는 최상기씨의 ‘숯과 은’과 이재삼씨의 ‘토와’가, 산업자원부장관상에는 한명자씨와 황봉순씨가, 중소기업청장상에는 김혜영씨와 정덕부씨가 각각 선정됐다.

단체상 부문에는 서울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경기도와 인천시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통령상 수상작을 비롯한 210종의 우수 공예품과 역대 수상작품이 함께 전시되며, 시·도별 판매관에서 공예품 판매와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예체험교실’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에는 공예산업의 발전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하여 우리나라 공예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공예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창업벤처국
소기업창업과
(042-481-4408)

중소기업청 행정혁신 연찬회 개최



분임토의 후 참여직원들이 ‘화합의 장’ 행사를 갖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3일과 4일 양일간 공주에 위치한 농업공제교육원에서 화합과 혁신을 주제로 270여명의 본청 및 지방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혁신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전 직원이 행정혁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직원들이 행정혁신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

해서는 분임별 토의 및 상호학습 과정을 거쳐 60일 이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임토의에서 도출된 개선 아이디어는 업무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실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연찬회로 인한 중소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의 절반 수준만 참석토록 했다.

▶ 기획관리관실
혁신인사담당관실
(042-481-4390)